

## 물류정보망 구축할 한국물류정보협회 출범

효율적인 물류정보망 구축을 지원할 “한국물류정보협회”가 이달중 설립된다.

국내 물류관련 정보통신업체와 대학 및 연구기관 등 물류업계는 물류정보망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정보공유 체계를 갖추기 위해 최근 한국물류정보협회를 구성하기 위한 발기인 대회를 9월 3일 개최하고 이어 지난달말 정보통신부에 법인설립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설립될 한국물류정보협회는 물류·유통정보 분야의 시장개방화 추세에 적극 대처하고 물류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해 출범하는 것으로 한국통신·기아자동차서비스·대한항공·신원 I&C·한양대·고려대·교통개발연구원등 50여업

체 및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국물류정보협회는 산하에 정책조사위원회·네트워킹위원회·물류SI구축위원회·ITS위원회·물류초고속망위원회·물류정보SW위원회·정보표준화위원회·물류정보기기위원회·기업지도사업위원회 등 9개 위원회를 두고 물류정보체계와 관련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협회는 물류정보체계의 통합 및 표준화, 물류정보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해외 선진기술 습득, 물류 관련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자신문 '96.9.4〉

## KT, 신용카드조회 통신료 대폭 인하

한국통신의 일반 데이터 교환회선인 HiNET-P의 통신 요금에 대폭 내린다.

한국통신은 9월부터 신용카드 조회·전자우편주문판매(POS)·수표조회 등에 한국통신이 HiNET-P망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 통신접속료를 종전 1분단위에서 10초이하, 30초이하, 31초이상 등 3단계로 나누어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HiNET-P 접속료는 종전 1분당 5.09원에서 10초 이하는 0.85원, 30초 이하는 2.54원

으로 조정되며 31초 이상은 종전대로 5.09원이다. 10초 이하 사용자의 경우 접속료 인하폭이 85%에 달한다.

이번 요금인하로 하루 평균 1백건, 1건당 10초 이내로 신용카드를 조회하는 가맹점의 경우, 일반전화회선을 이용하면 요금이 12만원정도가 드나 HiNET-P를 이용하면 3만5천원정도만 내면 된다.

〈서울경제신문 '96.9.2〉

## 기술금융회사 설립 사업다각화

한국통신은 정보통신사업 다각화를 위한 안정적 자금수요 확보 전담창구마련을 위해 금융사업에 진출하기로 하고 연내 정보통신 기술금융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한국통신은 지난 6월 확정된 정부의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따라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수립,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

한통은 정보통신 기술금융회사 신규서비스를 적극 개척,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정보통신분야의 금융 및 기술지원창구를 확보하며 M&A 및 전략적 제휴 등의 창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중 정보통신분야 중소기업 진흥육성

을 위한 창업투자회사를 설립하고 97~98년사이 사업을 본격화 한뒤 99년이후 정보통신분야의 종합여성 전문금융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전자주민카드(내무부) 전자지갑(동남 광주은행) 등 정부부처 금융계 등에서 IC카드를 이용한 사업을 추진중인 점을 감안, 자회사인 한국통신카드(주)를 통해 IC카드사업분야로 진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공중전화기를 금액 재충전기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거래응용시스템분야의 개발 및 단말기제조 등도 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96.9.3〉

## 정보기술협정(ITA) '무관세화' 통상현안부각

정보·통신기기의 무관세화를 골자로 한 정보기술협정(ITA) 가입문제가 오는 11월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회의(APEC)와 12월 싱가포르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 각각 의제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APEC의 실무위원회는 10월중 필리핀에서 회의를 갖고 미국·일본·캐나다·유럽연합(EU) 등 4개국이 주도하는 정보기술협정 추진문제를 11월 APEC 정상회의 의제 가운데 하나로 채택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WTO도 이에 앞서 9월말께 이사회를 개최, 정보기술협정 문제를 오는 12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각료회의의 정식의제로 채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정보기술협정 가입문제가 새로운 통상현안으로 급부

상하고 있다.

정보기술협정은 지난 4월 일본 고베에서 개최된 美·日·유럽연합(EU)·캐나다 등 '쿼드' 통상장관회담에서 첫 합의된 것으로, WTO 전회원국이 반도체·컴퓨터 및 하드웨어·SW·통신장비 등에 대해 무관세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관련산업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보기술협정 문제가 의제로 채택돼 WTO 회원사들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내년부터 오는 2000년까지 통신장비 등 정보기술관련 제품에 대한 무관세화가 불가피, 정보·통신 선진국들의 무차별적인 시장공세가 예상되고 있다.

〈전자신문 '96.9.4〉

## 중소 통신업계 M&A 활발

정보통신 분야 진출을 위한 대기업들의 중소 정보통신기업인수가 러시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

소 전문업체간에 우호적인 인수 및 합병(M&A)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제조업체들간에 사업영역 확대를 위해 합병하거나 인수하는 우호적 M&A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무선호출기와 무선전화기 생산전문업체인 텔슨전자는 지난해 5월 나우정밀로부터 분리·독립한 태연전자의 주식 90%를 인수 업무용 간이무선국(위키토키)을 비롯해 간이 주파수공용통신(TRS) 사업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했다.

폐쇄회로 TV장비를 개발해 해외수출에 나서고 있

는 하이트론시스템즈도 데이터통신장비 제조업체인 한스콤의 채무 5억원을 갚아주는 조건을 이 회사 지분 60%(액면가 5천원짜리 1백만주)를 인수, 경영권을 확보했다.

스탠더드텔레콤도 자회사인 윈텔을 합병해 기존의 무선호출기 사업과 무선전화기 사업을 연계해 유럽지역의 수출을 대폭 활성화하는 등 합병을 계기로 복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노리고 있다.

〈전자신문 '96.9.5〉

### 국산 주전산기Ⅲ 공급영역 확대

행정전산망분야에 한정돼 공급돼왔던 국산 주전산기Ⅲ가 금융·체신·국방·교육분야 등으로 공급 영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삼성전자·현대전자·LG전자·대우통신 등 국산 주전산기 4사는 올초부터 시군구의 행정전산화용으로 공급돼온 주전산기Ⅲ의 성능이 우수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금융·체신·국방분야 등으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운전면허시험장에 5대의 국산 주전산기Ⅲ를 공급한 데 이어 최근 상용시장 공략에 본격 나서 국민은행과 국산 주전산기

Ⅲ를 이용한 폰뱅킹시스템의 구축에 나서고 있다.

현대전자는 최근 군 기관을 통해 국산 주전산기Ⅲ의 성능시험을 실시한 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국방분야에 제품을 공급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LG전자도 석탄공사에 국산 주전산기Ⅲ를 공급한 경험을 살려 최근에는 한국통신 및 그룹 계열사 등 판로를 개척하고 있으며 대우통신은 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주전산기Ⅲ의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전자신문 '96.9.5〉

### 번호안내 114사용 유료화 추진

한국통신은 한통화 원가가 2백36원에 이르고 있는 114를 유료화하며 한통화에 40원, 80원, 1백20원 등 세가지 안을 놓고 검토중이다.

시내, 시외, 국제 전화번호에 대한 문의는 구분없이 동일한 이용료를 물게된다. 또 시외전화 문의때 지금까지 지역번호를 누르고 114에 문의했으나 98년 이후는 114만으로 가능하다.

114 유료화 이후에도 부득이하게 문의하는 경우를 고려, 월 2통화까지는 무료로 제공된다.

생활보호대상자와 시각장애자는 유료화 계획에서 제외된다. 공중전화로 114 안내전화를 할 경우, 현행 통화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한국통신은 전화안내체계도 개선해 98년까지 전화 번호부를 집으로 직접 배달해주고 문의전화의 직접연결, CD롬 판매, 팩스안내, 인터넷 안내제도 등을 시행하게 된다.

〈문화일보 '96.9.5〉